

‘10일간 휴식기’ 원주 DB
“안전체 복귀 아직 멀었다”

허웅 회복...김민구·윤호영 통증 여전

원주 DB는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 이후 5연승으로 선두를 달렸지만 부상자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한 때 4위까지 떨어졌다. 최근 순위 경쟁을 하는 팀들이 동반 부진하면서 2위에 올라선 DB는 다른 팀들보다 많은 10일간의 휴식기를 보내며 재정비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안전체가 모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DB 이상범 감독은 2일 “허웅은 정상적인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김민구와 윤호영의 복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휴식기 직전에 허웅은 허리 염좌, 김민구는 무릎과 골반 염좌, 윤호영은 발등 골절상을 입었다. 이 감독은 “김민구는 무릎에 통증이 남아 있어 아직 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윤호영은 하루 전인 1일 팀 훈련을 시작했는데 다쳤던 발등 상태를 체크하면서 복귀 시점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선수들의 근황을 전했다. 그런 뒤 “무리하게 복귀시킬 계획은 없다. 최대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볼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DB는 4일 인천 전자랜드, 7일 전주 KCC와 홈 2연전을 갖는다. 중상위권에서 경쟁하는 팀들과의 맞대결로 결과에 따라 순위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부상자들의 완벽한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DB가 휴식기 종료 이후에도 2위를 지키며 선두경쟁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종건 기자 glyong@donga.com

어깨수술 오세근, 4개월 결장 불가피



KGC 오세근

남자프로농구 안양 KGC 센터 오세근(32)이 수술대에 오른다.

오세근은 1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의 홈경기에서 상대 선수와 부딪혀 부상을 당했다. 곧바로 응급실로 향한 그는 어깨 쇄골 관절이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2일 MRI 정밀검진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에 있는 종합 병원 두 곳에서 검진을 받았고 쇄골과 날개 뼈가 연결되는 부위 인대가 많이 끊어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KGC 측은 “금속판을 (부상부위에) 대서 고정하는 수술이고 금속판 제거까지 3개월, 제거 후 재활까지 빠르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2일 입원한 오세근은 3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수술로 KGC는 오세근 없이 정규리그를 치러야하는 상황이다. 김승기 감독(48)은 “팀의 경기력이 점차 나아지는 상황에서 부상이 생겨 안타깝다. 이제 (오)세근이가 없는 상황도 선수들이 적응되어 있다. 잘 버텨서 시즌을 치러보겠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정신이 지쳤을뿐...조금만 기다려달라”

“경기력 회복 시점서 트레이드로 혼란 KCC 멤버 최고...우린 우승할 수 있다”



“뛰는 거 하나는 최고지.”

“체력이 좋아서 40분 다 뛰어도 문제 없을거야.”

전주 KCC의 센터이자 한국남자농구 국가대표의 대들보 라건아(30)를 바라보는 국내 프로농구 관계자들의 시선이다. 말 그대로 강철 체력의 소유자다. 코트를 설 새 없이 뛰어다니고 교체 없이 40분을 다 뛰어도 힘든 기색이 없다.

체력이 좋다는 이유로 라건아는 최근 몇 년간 쉴 새 없이 뛰었다. 지난해 특별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이후로는 더 그랬다. 소속팀이건 대표팀이건 가는 곳 마다 30분 이상을 뛰어야 했다. 마치 ‘농구 기계’ 같은 그런 그도 지켜보았다. 활동량이 줄었고 표정에서도 기진 기색이 역력했다.

●“정신적으로 지쳤어”

최근 만난 라건아는 정신적인 부분을 이유로 들었다. 몇 개월이 혼란의 연속이었다.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갔고 쉴 시간도 없이 곧바로 새 시즌을 맞았다.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정신적으로 지쳐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즌 초반 팀(현대모비스)의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더 그렇게 보인 것 같다. 대표팀을 마치고 현대모비스에 합류했는데, 팀 전략을 짰다. 새로운 것도 많았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혼란을 겪다보니 경기력이 오락가락했다. 이대성도 몸이

좋지 않아 초반에 뛰지 못했다. 나도 신이 나지 않았다.” 이후 점차 경기력을 회복해 나갔지만, 또 한 번 혼란이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트레이드로 현대모비스에서 KCC의 유니폼을 입은 것이다. “이대성과 우리가 잘하는 2대2를 집중적으로 해보자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게 잘 맞아떨어졌다. 정말 자유롭게 농구했고 KT와의 경기(11월 9일·108-105승)에서는 16점을 뒤풀고 이겼다. 팬들이 보기에 재미있을 것이다. (트레이드 직전)3경기는 경기력이 좋았다. 이대성과 돌아서 ‘우리 다시 우승해보자’고 했는데...트레이드 됐다.”

●실망스러운 KCC 경기력 “시간이 필요해”

현대모비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라건아와 이대성을 영입한 KCC는 단숨에 강력한 우승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기대 이하이다. KCC는 트레이드 이후 2일까지 5경기에서 1승4패에 머물렀다. 선수의 조화가 맞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라건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동료들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높다.

“아직은 모든 것이 새롭다. 맞춰서 하려고 노력 중이다. 팬들이 우리의 경기력에 실망하셨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정현, 이대성, 송교창 모두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다. 나와 찰스(로도)도 경쟁력이 있다. 아직은 알아가는 시간이다. 전장진 감독님 성향도 알아가고 있다. 찰스가 감독님과 같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해준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팀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우리는 우승을 할 것이다. 나는 동료들을 믿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KCC 라건아는 대표팀과 소속팀을 오가는 고된 일정 속에서 트레이드로 팀까지 옮기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정신적으로 지쳤고 외로웠다”고 털어놓은 그는 “우리는 능력이 있는 팀이다. 동료들을 믿는다”며 반등을 약속했다. 사진 제공 | KBL

김단비 “채진 언니는 나에겐 단비같은 존재”

〈신한은행〉
지난 시즌 외로운 에이스...후반 체력 ↓ 올 시즌 한채진 가세로 득점효율 증가



신한은행 김단비

인천 신한은행의 베테랑 포워드 김단비(29)는 지난 시즌까지 ‘외로운 에이스’였다. 그를 도와줄만한 조력자가 없어 혼자 본인의 역할인 득점은 기본이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상대 주요선수 수비까지 도맡아야 했다.

이는 기록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8~2019시즌 정규리그에서 김단비는 평균 15.32점·6.25리바운드·5.8어시스트·1.11스틸·0.79블록슛을 기록했는데 득점, 어시스트는 팀내 1위, 리바운드, 스틸, 블록슛은 팀내 2위였다. 김단비 혼자 복치고 장구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뜰이나 상대 견제가 심한 상황에서 공수에 걸쳐 부담이 크다고 경기 후반

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2점슛 성공률이 42.4%, 3점슛 성공률이 27.3%에 그친 것도 체력적인 영향이 크다.

그러나 올 시즌은 다르다. 김단비의 부담이 확 줄었다.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2일까지 6경기에 출전해 평균 12.67점·4.67리바운드·5.00어시스트·0.50스틸·1.33블록슛을 기록 중이다. 블록슛을 제외한 모든 기록이 조금씩 하락한 대신 2점슛 성공률은 45.3%, 3점슛 성공률은 35.3%로 증가했다. 부담이 줄면서 다시 효율적인 득점원이 됐다든가 의미다.

여기에는 베테랑 한채진(35)의 가세가 큰 몫을 차지한다. 올 시즌을 앞두고 신한은행

에 합류한 한채진은 정규리그 7경기에서 12.43점·4.43리바운드·3.86어시스트·1.71스틸을 기록하면서 김단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 한채진의 가세로 체력부담을 덜 김단비는 적극적으로 블록슛에 가담해 팀 프로텍터 역할을 할 여력이 생겼다. 기록에서처럼 공격 시 정확도가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김단비는 “채진 언니 덕분에 부담이 많이 줄었다. 언니가 끝없는 다해주고 경기를 풀어주기도 한다. 지난시즌까지는 혼자 공 몰고 수비 견제를 당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올 시즌에는 여러모로 편하게 농구하고 있다. 심지어 코너에 서서 쉬어갈 때도 있다”며 웃었다.

정지욱 기자

‘리그 MVP’ 정지석 vs ‘수비 1위’ 전광인 vs ‘블로킹 1위’ 신영석

2019 동아스포츠대상 남자프로배구 올해의 선수는?

현재 V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꼽은 최고수는 누구일까?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동아스포츠대상 남자프로배구 올해의 선수 역대 수상자의 면면을 보면 자신의 기량에 자부심이 강한 선수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선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동아스포츠대상이 출범한 2009년부터 역대 V리그 시즌 최우수선수(MVP)와 비교했다니 2009년 박철우, 2016~2017년 문성민만이 일치했다. 기자단이나 팬, 전문가들의 기량 평가와는 다른 투표결과가 의외로 많이 나왔다. 토종선수만을 동아스포츠대상의 수상후보로 정한 것도 이유겠지만 선수들은 성적 이외의 것도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코트에서 드러난 기량과 함께 경기장 밖의 생활 등 일반인은 쉽게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참고해 투표한다. 기량도 중요하지만 동료 후배들에게도 존중

받을 행동을 하는 모범적인 사람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지난해까지 역대 수상자를 보면 공격과 리시브를 두루 잘해야 하는 윙스파이커가 6차례 트로피를 받았다. 공격전담 아포짓스파이커(OPP)는 3차례 받았다. 리베로는 유일하게 여호현이 2010년 삼성화재 시절 받았다. 올해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후보의 폭을 넓혔다. 배구의 기본인 공격과 리시브, 디그 뿐만 아니라 블로킹, 연결 등에서 좋은 성적을 차지한 선수도 추천 선수명단에 넣었다.

‘CMS와 함께하는 2019동아스포츠대상’ 프로배구 남자부 추천 선수는 ▲정지석(대한항공·윙스파이커·2018~2019시즌 MVP, 득점 9위, 공격종합 3위, 서브 6위, 리시브 2위, 디그 4위, 수비 2위) ▲한선수(대한항공·세터·세트 1위) ▲전광인(현대캐피탈·윙스파이커·



정지석 한선수 전광인 신영석 박철우 정민수

2018~2019 챔피언결정전 MVP, 수비 1위, 득점 10위, 공격종합 5위, 서브 10위, 리시브 5위, 디그 7위) ▲신영석(현대캐피탈·미들블로커·블로킹 1위, 속공 5위) ▲박철우(삼성화재·OPP·득점 8위, 공격종합 6위, 오픈공격 3위, 서브 7위) ▲정민수(KB손해보험·리베로·리시브 1위, 디그 2위, 수비 4위) 등이다. 이들 가운데 남자프로배구 올해의 선수가 누가 될지 여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벌어지는 시상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포시즌스호텔서울(서울 광화문 사거리)
- 주최 :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채널A, CMS(센트럴메디컬서비스㈜)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케이토,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